

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

새누리의 진단

- 우리나라는 정부 및 공공부문, 민간부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대표성이 낮음.
- 여성인재 양성과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중·장기적 전략에 기반을 둔 여성인재양성 시스템은 부재

새누리의 약속

-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요직에 배치하여 여성 대표성 확대·강화
-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,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공 및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제고
-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 채용쿼터제 도입으로 교육부문의 여성 교수와 여성 교장비율 확대
-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각계각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 함양 과정 개설 및 여성인재 컨설팅트 육성사업 전담
- 정부, 공공 및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와 리더를 육성하여 2017년까지 10만의 여성인재풀 확보

새누리의 실천

- 여성인재DB 구축을 위해 「여성발전기본법」 개정

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

새누리의 진단

- 많은 여성들이 임신·출산·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다가 재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재취업을 못하거나 단순노동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음.
- 창업이나 고속런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경력단절 여성들의 관리가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경력단절 여성의 숙련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확대
-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대학, 폴리텍대학, 직업교육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단절 기간에 맞춤형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제공
- '새로일하기센터'확대를 통해 직업상담, 다양한 직업훈련,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
- '새로일하기센터'내 창업지원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여성의 맞춤형 창업 지원

새누리의 실천

- 2014년부터 여성훈련과정 및 새로일하기센터 30개소씩 확대 예산 반영

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

새누리의 진단

- 돌봄노동 시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지역 규제, 영세기관 난립과 과당 경쟁, 정부의 낮은 서비스 이용료 책정 등으로 업체운영이 어렵고 품질수준 미흡, 종사자는 기본생계 유지 곤란

새누리의 약속

- 돌봄서비스 유형 및 임금체계의 표준화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, 돌봄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실질적 표준안을 제공
- 서비스 수급현황과 전망, 제공업체 및 고용알선기관, 종사자수와 고용형태 및 임금·근로시간 현황 등 기본적 통계정보 시스템구축

새누리의 실천

- (가칭)「사회서비스 사업지원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
-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및 자격제도 신설 근거 마련

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

새누리의 진단

-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고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2006년에 도입하였으나 2011년 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중 이에 미달하는 사업장은 전체 51.4%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.

새누리의 약속

-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를 통해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강화
- 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% → 70%
-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
-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업 명단 공표

새누리의 실천

- 「남녀 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규칙 개정